

- **경계선지능인(느린학습자) 자립지원 방안 모색** -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보고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목 차

I . 총 평	1
II . 주요 토론내용	2
① 주제발표(1인)	2
② 지정토론(5인)	3
③ 자유토론(참여자간)	7
④ 청중토론	8
⑤ 마무리말씀	9
III . 토론회 도출과제 및 결과	9
IV . 후속조치(행정 · 협조사항)	10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충청남도 경계선지능인(느린학습자) 자립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에 대하여 도민, 공무원, 관련 전문가들과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주요 논의제안 내용을 분석, 정책에 반영하는 등 경계선지능인(느린학습자) 자립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민·관·학의 노력이 요구됨.

《 행 사 개 요 》

- 일시·장소 : '23. 10. 23.(월), 14:00~16:30 / 충남도의회 303호 회의실
- 참 석 : 50여명(충남 도민,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 주 제 : 경계선지능인(느린학습자) 자립지원 방안 모색
- ※ 신청의원 : 복지환경위원회 정병인 의원

I 총 평

❖ 금번 토론회는 충청남도민과 관계공무원, 경계선지능인 관련 단체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에서 경계선지능인(느린학습자)의 목소리를 듣고 충남 경계선지능인(느린학습자) 자립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자리로,

- 충남 경계선 지능인(느린학습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에 충청도, 충남교육청, 관련단체, 도민이 필요성을 공감하였으며,
- 경계선지능인(느린학습자)이 전문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범부처 차원의 통합적 지원을 위한 거점기관 설립 필요성을 제안함.
- 또한 빠른 발견과 대처로 경계선지능인의 학습력이 향상될 수 있음에, 경계선지능인(느린학습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선별방법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제안함.

- 경계선지능인의 돌봄과 지원은 건강, 복지, 교육, 고용, 주거, 법적분야를 포함하는 모든 관련분야에서 정의, 형평성, 공정성, 통합과 다양성의 원칙을 기초로 행해져야 할 것으로, 법령제정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이들에 맞는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

⇒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 의견들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등과 공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함.

II 주요 토론내용

1 주제발표(1인)

○ 박현숙 (경계선지능연구소 소장)

- 충청남도 전체 인구 212만7천명의 14%에 해당하는 약 30만명이 경계선지능인으로 추정됨. 경계선지능인은 전체 연령에 골고루 분포하므로 각 연령대에 적합한 다각도의 복지지원책이 필요함.
- 경계선지능인은 인지기능발달부진, 배움능력 부족, 언어발달부진, 사회성 결여, 심리정서적 문제 등 전 연령에서 공통적으로 문제점을 보이고 있어, 조기발견과 지능검사를 통한 대상자 선별 등 지원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함.
- 경계선지능인은 지적장애를 비롯한 여타의 장애인단인구에 비해 적응의 어려움, 정신건강의 문제 등 경제적·심리적 자립불가, 가정파탄과 불화로 인한 가정해체 등 다양한 개인적·사회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 사각지대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음.
- 경계선지능인은 건강한 사회적구성원으로 살아가길 소망하고, 사회로부터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고 있음.
- 경계선지능인의 돌봄과 지원은 건강, 복지, 교육, 고용, 주거,

법적분야를 포함하는 모든 관련분야에서 정의, 형평성, 공정성, 통합과 다양성의 원칙을 기초로 행해져야 할 것임.

- 또한 경계선지능인이 낙인감을 갖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며서 경계선지능인의 삶의 질, 복지 및 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통합적 지원이 필요하고, 평생교육차원의 소극적 지원을 넘어서 범부처 차원의 통합적 지원을 위한 거점기관 설립이 필요함

[2] 지정토론(5인)

① 이교봉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장)

-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 어디에도 속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계선지능인(느린학습자)는 사회에서 ‘쓸모없는 사람’으로 비하되고 자존감 저하로 은둔과 고립의 상황까지 연결되고 있는 상황임.
-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이하 ‘밈센터’)는 경계선지능인을 판별하는 기준인 지능에 기초하여 인지적 발달을 중점적으로 돕기 위한 평생교육 관점에서 접근하여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음.
- 밈센터에서는 경계선지능인을 선별발굴하기 위하여 ‘선별검사’, ‘종합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심리정서를 위한 프로그램, 직업교육, 전문가양성교육 등 20여가지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그 중 가족자조모임을 통하여 경계선지능인 부모들간의 정보공유 활동을 이어가고 있음. 특히 이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의 호응도가 매우 좋아 경계선지능인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음.

- 충남도도 얼마전 조례 제정으로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제도적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음.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근거규정은 만들었으니 행정적 지원방안이 세밀히 구축되어야 할 것이며, 그들이 맘놓고 지원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소통창구인 기관(센터)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함.

② 김태길 (충남교육청 교육과정과 초등교육팀장)

- 충남교육청 경계선 지능학생 의심학생 수 1.08%는 난독, 난독증, 학습지원대상 학생 등 지능검사를 실시한 것이 아닌, 선생님이 관찰한 현상을 토대로 경계선지능인으로 의심되는 학생수를 추출한 것이기에 발제자가 말씀하시는 14%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양해 바람.
- 선생님이 수업할 때 중간단계의 아이를 기준으로 수업을 하기에 상위단계의 아이들은 지루할 것이고, 하위단계에 있는 경계선 지능 아이들이 따라오기 힘든 것은 당연함.
- 하지만 난독증·경계선지능 아이들을 위해 학습종합클리닉 센터 운영, 차오름교실 운영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많이 미흡한 것으로 생각됨. 앞으로 기초학력보장법과 조례에 지원근거가 마련된 만큼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맞춤형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임.
- 기초학력보장법의 시행으로 최근 “학력향상 온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이에 맞춰 학생 개인별 맞춤지원 및 학습부진 진단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음
- 향후 현장 교사들에게 지능검사 도구 활용 및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연수 등을 통하여 경계선 지능 학생을 보다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임.

- 또한 교생실습 때부터 경계선지능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을 키우기 위한 교원 실습방법 지원방안을 마련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음.

③ 허창덕 (충청남도 복지보육정책과장)

- 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와닿은 것이 오늘이 처음인 것 같음. 현재 충남도는 복지시설에 있는 경계선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중인 693명의 보호아동 중 127명이 경계선지능 아동으로 약 18%에 달하고 있음.
- 충남도에서는 2019년도부터 아동복지시설의 경계선지능 아동 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예산의 부족으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는 못하고 있음.
- 우선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순화된 언어로 통일된 용어가 있었으면 좋겠고, 아동은 일정한 나이가 되면 전수조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분리하여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그러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정비할 부분도 있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협력하여 아이들이 일정한 학년이되면 학교마다 전수조사를 하고 학부모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 결과를 가지고 반편성이라든지 맞춤형 학습과정을 시행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됨.
- 경계선지능인 자립을 위한 실무적인 부분은 토론회 이후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고, 선진사례보다는 우리 충남도 실정에 맞는 정책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조례도 만들어졌으니 조례를 바탕으로 경계선지능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더 만들어보고 그런 학습과정도 만들어줄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할 것임.

④ 박수진 (충남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부장)

- 충청남도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 대상 670여명 중 경계선지능인 의심이 되는 7세이상 40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경계선지능 아동이 약 25%, 지적장애 아동 13.8% 가량정도로 조사됨. 이 자료는 ' 17년도 자료 기준이기에 현재는 경계선 지능 아동의 숫자는 30%가 넘어 40%에 육박하고 있다 추정하고 있음.
- 보호 대상 아동 자체만으로도 자립이 힘든데 ‘경계선지능’이라는 특성이 가중된다면 자립은 훨씬 어렵고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음. 2021년도부터 경계선지능 아동을 대상으로 우리 기관에서는 자립과 자립체험단이라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
- 경계선지능 아동은 반복적인 훈련이 중요하기 때문에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 현장에서도 애로사항이 많은데, 경계선지능을 갖고 있는 청년이 본인이 경계선지능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인지시켜 주는데 애로사항이 많음.
- 경계선지능 아동은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에 맞는 생애주기별 관리가 필요한데 자립준비 청년이 되어 시설에 왔을 경우 부딪치는 부분이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경계선 지능 아동들의 사회적 자립이 몇 년간 유예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정말로 독립할 수 있는 자립 지원책이 중요함. 충청남도에서 내년도 사업과 예산에 특별하게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⑤ 김 연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연구교수)

- 장애인인 경우는 변화가 어렵지만 사실 경계선 지능 아동들은 연령이 어리면 어릴수록 그리고 개입의 정도가 깊으면 깊을수록 나아질 수 있는 범위가 있다고 생각함.

- SIB사업(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정부나 지자체가 아닌 민간에서 투자하고 공급한 다음 성과를 달성한 경우에만 보상하는 제도)이라는 것을 예전에 제안 드렸었던거 같은데, 누군가가 정말 책임 있는 지도 하에 책임 있는 교육과 훈련을 장기간을 통해서 해주면 일정 정도의 지능지수를 높여줄 수 있음. 이에 경계선지능 아동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책이 필요함.
- 현대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계선지능 아이들은 대부분이 유전적이라기보다는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유형들이 많기 때문에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친구들과의 소통방법을 알려주어 따돌림 당하지 않게 도와줄 수 있는 평생 교육지원센터가 필요함.
- 현재 아동보육기관에 있는 아이들의 치료 지원을 전문가에게 맡겨야 할 것이고, 자립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를 잘 지켜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는 것이 평생교육기관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봄.
- 충남 지역에서 실제 실현 가능한 정책이 담긴 조례가 되도록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임.

[3] 자유토론(토론자간)

- 조심해야 할 것은 지능지수가 높아졌다고 해서 이들의 적응력이 높아졌다고 볼 수는 없기에, 성과지표를 지능지수로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음. [의견 : 박현숙 경계선지능연구소 소장]
- SIB 사업은 저도 지금 처음 들었는데, 우리 느린 학습자와 관련해서는 한 번 더 검토해보아야 할 것임.
- 또한 현재 국회에서 허영의원이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로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전국적으로 지원방안이 시행될 것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내용을 검토해서 우리 조례가 실효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검토 하도록 하겠음.

[제안 : 정병인 충남도의원]

4 청중토론

○ (경계선지능인 당사자임을 밝힘) 조례나 국회나 경계선지능인 지원책이 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간에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중구난방식으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음.

- 국회에서 경계선지능인 관련하여 4건이나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중으로 있다고 하던데, 현재 어떤상태인지 아시는분은 답변바람.

[질의 : 장문종 도민]

○ 현재 외국도 경계선지능인이 장애인으로 분류되고있지 않음. 그런 시스템이 마련된 곳은 스페인의 지방자치단체인 카탈루냐 뿐으로 외국도 거의 없음. 현재 우리나라는 법이 제정이 돼어 발의가 된 상태이지만 아직 국회 계류중으로 정해진 바가 없음.

[답변 : 박현숙 경계선지능연구소 소장]

○ 아까 서울시에서 부모 커뮤니티를 말씀하셨는데, 청년 커뮤니티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적응과정 동안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과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방식들도 필요함.

- 또한 센터에서 청년들의 자체 모임과 청년 커뮤니티를 만들고 지원할 수 있는 역할들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음.

- 그리고, 아동자립지원단에서 모니터링 예산이 꼭 들어가서 퇴소 이후에 반드시 이 친구들을 10년이상 제대로 모니터링이 되어야 할 것임.

[제안 : 박현숙 경계선지능연구소 소장]

5 마무리 말씀

-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있었던 우리 경계선지능인, 느린학습 친구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 배려의 정책이 필요한 것 같음. 그분들이 상처가 더 큰 이유는 우리 사회에 대한 기대가 크고 또 워낙 성실하게 생활하기 때문으로 생각됨.
- 그분들이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는 그분들을 함께 포용하고 함께 사회 구성원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따뜻한 복지충남이 되었으면 함.
-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따뜻한 복지충남을 여기 계신 분들과 더불어 만들어 나가는 충청남도 의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임.

[마무리발언 : 정병인 / 충청남도의회 의원]

III 토론회 도출과제 및 결과

<도출과제>

- 충남도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미비.
- 빠른 발견과 대처로 경계선지능인의 학습력이 향상될 수 있음에, 경계선지능인(느린학습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선별방법 시스템의 부재
- 경계선지능인(느린학습자)이 전문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기관의 부재

<결 과>

- 충남도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특히 저학년 아이들에 대한 진단이 먼저 이뤄져야 할 것임
- 경계선지능인(느린학습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선별방법 시스템 구축 조속히 필요
- 경계선지능인(느린학습자)이 부담없이 전문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기관 또는 센터 필요(예:서울시 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센터)
- 경계선지능인 지원 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필요.
(*필요하다면 충청남도·충청남도교육청 조례 개정도 염두)

IV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 협의 및 도출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 충청남도 복지보육정책과,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과정과.

참고 1 의정토론회 사진



인사말씀(정병인 의원)



축사(김민수 충남도의원)



축사(이현숙 충남도의원)



행사진행(토론모습)



발제자(박현숙 경계선지능인 연구소장)



참석자 기념촬영

참고 2 언론보도 현황

연번	언론사명	제목(88건)	비고 (보도일자등)
인터넷.통신보도		83건	
1	충청신문	충남도의회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 모색	'23.10.23
2	온양신문	충남도의회,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 모색	"
3	충남일보	충남도의회, 경계선 지능인 지원 방안 모색	"
4	환경신문	충남도의회 /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 모색	"
5	금강일보	충남도의회,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 모색	"
6	SNS타임즈	충남도의회,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 모색	"
7	서울매일	충남도의회,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 모색	"
8	투데이충남	충남도의회,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 모색	"
9	도민일보	충남도의회,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 모색	"
10	시사통신	충남도의회,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 모색	"
11	충청뉴스	충남도의회,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 모색	"
12	뉴스세상	충남도의회,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 모색	"
13	신아일보	충남도의회, 경계선 지능인(느린학습자) 지원 방안 모색	"
14	쿠키뉴스	충남도의회, 경계선지능인 자립 지원 방안 모색 의정토론	"
15	뉴스스토리	충남도의회, 경계선지능인 '느린학습자' 지원 방안 모색	"
16	퍼스트뉴스	충남도의회, 경계선 지능인(느린학습자) 지원 방안 모색	"
17	놀똥신문	충남도의회, 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 방안 모색 의정토론회 개최	"
18	시사터치	정병인, 경계선지능인 지원방안 모색	"
19	충청뉴스라인	경계선지능인 위한 체계적 지원 필요	"
20	굿모닝충청	정병인 충남도의원 "경계선지능인 전문기관 설립"	"
21	대전일보	충남도의회, 느린학습자 지원책 모색	"
22	아시아뉴스통신	충남도의회, 느린학습자 지원 방안 모색	"
23	농수축산	충남도의회, 느린학습자 지원 방안 모색	"

24	서산타임즈	충남도의회, 경계선지능인(느린학습자) 지원 방안 모색	'23.09.21
25	프레스뉴스	충남도의회, 경계선지능인(느린학습자) 지원 방안 모색	"
26	뉴스투나잇	충남도의회, 경계선지능인(느린학습자) 지원 방안 모색	"
27	신한뉴스	충남도의회, 경계선지능인(느린학습자) 지원 방안 모색	"
28	KSPnews	충남도의회, 경계선지능인(느린학습자) 지원 방안 모색	"
29	골든타임즈	충남도의회, 경계선지능인(느린학습자) 지원 방안 모색	"
30	백제뉴스	충남도의회, 경계선지능인(느린학습자) 지원 방안 모색	"
31	미디어이슈	충남도의회, 경계선지능인(느린학습자) 지원 방안 모색	"
32	크리스찬월드리뷰	충남도의회, 경계선지능인(느린학습자) 지원 방안 모색	"
33	미디어투데이	충남도의회, 경계선지능인(느린학습자) 지원 방안 모색	"
34	시사일보	충남도의회, 경계선지능인(느린학습자) 지원 방안 모색	"
35	명성일보	충남도의회, 경계선지능인(느린학습자) 지원 방안 모색	"
36	뉴스체인지	충남도의회, 경계선지능인(느린학습자) 지원 방안 모색	"
37	뉴스티앤티	충남도의회, 경계선지능인(느린학습자) 지원 방안 모색	"
38	코리아닷컴	충남도의회, 경계선지능인(느린학습자) 지원 방안 모색	"
39	더시그널뉴스	충남도의회, 경계선지능인(느린학습자) 지원 방안 모색	"
40	경기인터넷신문	충남도의회, 경계선지능인(느린학습자) 지원 방안 모색	"
41	내외일보	충남도의회, 경계선지능인(느린학습자) 지원 방안 모색	"
42	국제뉴스	충남도의회, 경계선지능인(느린학습자) 지원 방안 모색	"
43	NWS내외방송	충남도의회, 경계선지능인(느린학습자) 지원 방안 모색	"
44	충남인터넷뉴스	충남도의회, 경계선지능인(느린학습자) 지원 방안 모색	"
45	정필	충남도의회, 경계선지능인(느린학습자) 지원 방안 모색	"
46	경인투데이뉴스	충남도의회, 경계선지능인(느린학습자) 지원 방안 모색	"
47	범죄예방신문	충남도의회, 경계선지능인(느린학습자) 지원 방안 모색	'23.09.21
48	코리아플러스	충남도의회, 경계선지능인(느린학습자) 지원 방안 모색	"
49	문화매일	충남도의회, 경계선지능인(느린학습자) 지원 방안 모색	"
50	경인굿뉴스	충남도의회, 경계선지능인(느린학습자) 지원 방안 모색	
51	뉴스쑈	충남도의회, 경계선지능인(느린학습자) 지원 방안 모색	

52	뉴스밴드	충남도의회, 경계선지능인(느린학습자) 지원 방안 모색	
53	로컬경기	충남도의회, 경계선지능인(느린학습자) 지원 방안 모색	
54	sbn뉴스	충남도의회, 경계선지능인(느린학습자) 지원 방안 모색	
55	드림지원센터미 디어	충남도의회, 경계선지능인(느린학습자) 지원 방안 모색	
56	미디어타임즈	충남도의회, 경계선지능인(느린학습자) 지원 방안 모색	
57	대전투데이	충남도의회, 경계선지능인(느린학습자) 지원 방안 모색	
58	검경일보	충남도의회, 경계선지능인(느린학습자) 지원 방안 모색	
59	전국지방자치뉴 스	충남도의회, 경계선지능인(느린학습자) 지원 방안 모색	
60	중앙뉴스미디어	충남도의회, 경계선지능인(느린학습자) 지원 방안 모색	
61	충청일보	충남도의회, 경계선지능인(느린학습자) 지원 방안 모색	
62	시사뉴스24	충남도의회, 경계선지능인(느린학습자) 지원 방안 모색	
63	파워뉴스	충남도의회, 경계선지능인(느린학습자) 지원 방안 모색	
64	특급뉴스	충남도의회, 경계선지능인(느린학습자) 지원 방안 모색	
65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경계선지능인(느린학습자) 지원 방안 모색	
66	서산시대	충남도의회, 경계선지능인(느린학습자) 지원 방안 모색	
67	동양일보	충남도의회, 경계선지능인(느린학습자) 지원 방안 모색	
68	세계타임즈	충남도의회, 경계선지능인(느린학습자) 지원 방안 모색	
69	세종nTV	충남도의회, 경계선지능인(느린학습자) 지원 방안 모색	
70	누리일보	충남도의회, 경계선지능인(느린학습자) 지원 방안 모색	
71	충청메시지	충남도의회, 경계선지능인(느린학습자) 지원 방안 모색	
72	C뉴스041	충남도의회, 경계선지능인(느린학습자) 지원 방안 모색	
73	중부시사신문	충남도의회, 경계선지능인(느린학습자) 지원 방안 모색	
74	충청데일리	충남도의회, 경계선지능인(느린학습자) 지원 방안 모색	
75	중앙매일	충남도의회, 경계선지능인(느린학습자) 지원 방안 모색	
76	세계타임즈	충남도의회, 경계선지능인(느린학습자) 지원 방안 모색	
77	포인트데일리	충남도의회, 경계선지능인(느린학습자) 지원 방안 모색	
78	세종방송	충남도의회, 경계선지능인(느린학습자) 자립지원 방안 토론	

79	금강투데이	충남도의회, 경계선지능인(느린학습자) 지원 방안 모색 의정토론회 개최	
80	뉴스파고	충남도의회, '경계선지능인(느린학습자) 자립지원 방안 모색' 의정토론회 개최	
81	충청타임즈	느린학습자 자립 지원방안 모색	
82	일간투데이	정병인 충남도의원 "경계선지능인(느린학습자) 지원방안 모색"	
83	충남신문	정병인 충남도의원, 경계선지능인(느린학습자) 지원 방안 모색	
지면보도		1건	
84	투데이충남	충남도의회,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 모색	'23.10.24 종합02면
85	금강일보	충남도의회 '경계선 지능인' 지원방안 모색	'23.10.24 정치04면
86	충청신문	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 방안 찾는다	'23.10.24 종합03면
87	대전일보	느린학습자 지원책 모색 충남도의회	'23.10.24 지역07면
88	충청타임즈	느린학습자 자립 지원방안 모색	'23.10.24 지역15면

□ 지면보도

충청신문

2023. 10. 23. (월) 14:00~16:30 충청남도의회 303호 회의실 주최: 충청남도의회(복지환경위원회) / 좌장: 정병인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가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3일 관련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충남도의회 제공)

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 방안 찾는다

**충남도의회 의정토론회 개최
“전문기관 설립 체계적 지원”**

충남도의회가 경계선 지능인, 일명 ‘느린학습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3일 ‘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좌장을, 박현숙 경계선지능연구소장이 발제를 맡았으며, 민관의 경계선지능 전문가들이 모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박현숙 소장은 경계선지능인이 생애주기별로 겪는 어려움을 설명하고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소장은 △경계선지능인 조기발견과 적절한 조치 △범부처 차원의 통합적 지원을 위한 거점기관 설립 △경계선지능인이 낙인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 세심한 정책 마련을 제안했다.

정병인 의원은 “700만명에 이르는 국내 경계선지능인을 사회의 품에서 건강하게 지켜내고 자립시키기 위해서는 전문기관 설립과 실태조사, 지자체와 교육청의 체계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희형 기자 eulee222@dailycc.net (17.0*13.6)cm

느린학습자 자립 지원방안 모색

충남도의회 의정토론회 개최

충남도의회가 경계선 지능인, 일명 ‘느린학습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3일 ‘경계선지능인(느린학습자) 자립지원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정병인 의원(천안 8·더불어민주당)이 좌장을, 박현숙 경계선지능연구소장이 발제를 맡았으며, 민관의 경계선지능 전문가들이 모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박현숙 소장은 경계선지능인이 생애주기별로 겪는 어려움을 설명하고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소장은 △경계선지능인 조기발견과 적절한 조치 △범부처 차원의

통합적 지원을 위한 거점기관 설립 △경계선지능인이 낙인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 세심한 정책 마련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교봉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장, 박수진 충남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부장, 김연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연구교수, 허창덕 충청남도 복지보육정책과장, 김태길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과정과 팀장도 경계선지능 아동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며, 다양한 사례를 제시·공유하고,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병인 의원은 “전문기관 설립과 실태조사, 지자체와 교육청의 체계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내포 오세민기자

(11.2*10.8)cm

충남도의회 ‘경계선 지능인’ 지원방안 모색

의정토론회 열고 정책 마련 제안
‘느린학습자’ 관심·지원 등 강조

충남도의회가 경계선 지능인, 일명 ‘느린학습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3일 ‘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병인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8)이 좌장을, 박현숙 경계선지능연구소장이 발제를 맡았으며, 민관의 경계선지능 전문가들이 모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박 소장은 경계선지능인이 생애주기별로 겪는 어려움을 설명하고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소장은 경계선지능인 조기발견과 적절한 조치, 범부처 차원의 통합적 지원을 위한 거점기관 설립, 경계선지능인이 낙인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 세심한 정책 마련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교봉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장, 박수진 충남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부장, 김연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연구교수, 허창덕 충청남도 복지보육정책과장,

김태길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과정과 팀장도 경계선지능 아동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며, 다양한 사례를 제시·공유하고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 의원은 “700만 명에 이르는 대한민국의 경계선지능인을 우리 사회의 품에서 건강하게 지켜내고 자립시키기 위해서는 전문기관 설립과 실태조사, 지자체와 교육청의 체계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내포=최신웅 기자 csu@ggilbo.com

(21.1*10.1)cm

충남도의회, 경계선지능인(느린학습자) 지원 방안 모색

박보성 기자

'경계선지능인(느린학습자) 자립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 개최
정병인 의원 "경계선지능인 실태 파악과 전문기관 설립 위해 민관 함께 노력해야"



▲ 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 방안 모색 의정토론회

충남도의회가 경계선 지능인, 일명 '느린학습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3일 '경계선지능인(느린학습자) 자립지원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좌장을, 박현숙 경계선지능연구소장이 발제를 맡았으며, 민관의 경계선지능 전문가들이 모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박현숙 소장은 경계선지능인이 생애주기별로 겪는 어려움을 설명하고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소장은 "경계선지능인 조기발견과 적절한 조치·범부처 차원의 통합적 지원을 위한 거점기관 설립"을 경계선지능인이 낙인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 세심한 정책 마련을 제안했다.



▲ 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 방안 모색 의정토론회

토론자로 나선 이교봉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장, 박수진 충남아동자립지원 전담기관 부장, 김연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연구교수, 허창덕 충청남도 복지보육정책과장, 김태길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과정과 팀장도 경계선지능 아동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며, 다양한 사례를 제시·공유하고,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병인 의원은 "700만명에 이르는 대한민국의 경계선지능인을 우리 사회의 품에서 건강하게 지켜내고 자립시키기 위해서는 전문기관 설립과 실태조사, 지자체와 교육청의 체계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내포=박보성기자

박보성 기자 bakin114@hanmail.net